

## 금속노조 2026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합의

1일, 14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안 서명...정년연장 단체교섭 명시, 금속 최임 1만 830원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6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9월 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노·사는 이날 본 교섭 정회 직후 축소교섭을 열어 19시경 2026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을 끌어냈다. 지난 4월 14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정년 연장, 초기 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주요 쟁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우선 노사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간 소득 공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합의(제43조 개정)했으며, 임금협상만 진행되는 해라도 관련 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을 열어 정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조항(제9장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 조 신설)도 새롭게 마련됐다. 회사가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사전 통보 및 노사 합동 점검을 거쳐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 조합 요청 시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인사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신설했다. 노사는 중앙교섭 및 지부 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 수립 과정에 노사 참여 협의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2027년 적용되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 개정)은 통상시급 1만 830원, 월 통상임금 2,447,58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금속 최저임금(1만 420원) 대비 4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 130원 높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안에 서명한 뒤 교섭 마무리 인사말에서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대정부 요구가 뜻깊다"라면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결실을 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역시 "노사 모두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 달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금속 노사 의견접근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 2026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026. 9. 1. 14차 중앙교섭

### 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제9장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 조 신설)

- 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이 고용·산업안전·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하도록 협력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 사전 점검한 뒤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한다.
- ③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는 경우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한다. 단, AI 알고리즘 등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1.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
  2.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
  3.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
  4. 사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
- 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 나.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제43조 개정)

#### 제43조 【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 ② 금속 노사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간 소득공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 시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 연장 방식 및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의견청취 내지 협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④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 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 개정)

###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830원과 월 통상임금 2,447,5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현행 유지)
- ③ (현행 유지)
- ④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① 정부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
- 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
- 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2026년 9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 상 만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박 근 형